

일본의 마쓰리에 관해서*

이시준**

- I. 서론
- II. 일본의 공휴일
- III. 천황에 의한 궁중제사
- IV. 신궁제사
- V. 신사 제사—일본의 3대 마쓰리
- VI. 가정제사
- VII. 결론

〈국문초록〉

일본의 마쓰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흥겨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등롱이나 조형물의 행렬을 떠올리기 쉬운데, 천황이 황거에서 올리는 제사(祭祀)도, 신사에서 매일같이 거행하는 제의(祭儀)도 모두 마쓰리인 것이다. 일본의 마쓰리는 농경사회의 공동체제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매년 수확을 감사하기 위해서 신을 영접하고 공물을 바치고 감사의 뜻을 모아 춤과 노래를 바치는 것이다. 마쓰리의 종교적 베이스가 되고 있는 신도(神道)사상은 모든 것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에니미즘을 반으로 하고 있다. 마쓰리의 행위에는 감사의 마음, 상부상조, 자연에 대한 경외심 등 현대인이 자칫 상실하기 쉬운 덕목들이 동반된다. 우리들은 마쓰리의

* 이 글은 2018년도 숭실대학교 인문아카데미에서 한 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기원과 덕목을 잘 새기고 동시에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서의 마쓰리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어: 마쓰리, 천황, 제사, 신도, 에니미즘

I. 서론

일본의 ‘마쓰리(祭り)’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우지코(氏子)가 거행하는 1년에 한번 정도 거행하는 흥겨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등롱이나 조형물의 행렬을 떠올리기 쉬운데, 천황이 황거에서 올리는 제사(祭祀)도, 신사에서 매일같이 거행하는 제의(祭儀)도 모두 마쓰리인 것이다. 일본의 마쓰리는 농경사회의 공동체제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매년 수확을 감사하기 위해서 신을 영접하고 공물을 바치고 축사(祝詞, 노리토)를 읊어 사의를 표하면서 연회를 하며 가무를 바치는 것이다. 마쓰리에 자주 등장하는 신여(御輿, 미코시)는 신이 행차할 때 타는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면적인 요소가 많은 신여의 행렬이든 천황이나 신관(神官)들이 행하는 엄숙한 제사든 모두 마쓰리이며, 이러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신에 대한 감사의 행위’라 할 수 있다.

II. 일본의 공휴일

일본인들은 공휴일을 ‘축일(祝日)’이라고 하는데 간혹 나이든 사람들은 ‘제일(祭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제일이란 결국 글자 그대로

로 ‘마쓰리(祭り)의 날’인데 무슨 마쓰리인가 하면 황실을 중심으로 한 신(神道)의 마쓰리 날인 것이다. 가령 이하의 일본의 축일일람표¹⁾를 전전의 제일과 비교해 보면 천황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이 깊은 제일(祭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일본의 축일 일람표

번호	명칭	날짜	戰前の 祭日	비고
1	설날元日	1월 1일	四方節	새해를 축하함
2	성인의 날(成人の日)	1월의 제2 월요일		성인이 된 청년을 축하함. 소정월(小正月)에서 유래.
3	건국기념일(建国記念日)	2월 11일	紀元節	
4	춘분의 날(春分の日)	춘분일	春季皇靈祭	자연과 생물을 소중히 여김
5	쇼와의 날(昭和の日)	4월 29일	天長節	쇼와 천황의 생일. 1988년 이전에는 天皇誕生日, 1989년~2006년은 미도리노히(みどりの日)
6	헌법기념일(憲法記念日)	5월 3일		일본 헌법이 시행된 날
7	미도미 날(みどりの日)	5월 4일		자연의 은혜에 감사. 원래는 4월 29일이었지만 2007년 이후 ‘국민의 휴일’이었던 5월 4일로 이동
8	어린이 날(こどもの日)	5월 5일		단오의 절구
9	바다의 날(海の日)	7월 제3 월요일		바다의 은혜에 감사. 2002년까지는 7월 20일이었으나 ‘해피먼데이제도’에 의해 요일고정이 됨
10	산의 날(山の日)	8월 11일		산에 대한 감사. 2016년부터 시행
11	경로의 날(敬老の日)	9월 제3 월요일		2002년까지는 9월 15일이었으나 ‘해피먼데이제도’에 의해 요일고정이 됨
12	추분의 날(秋分の日)	추분날	秋季皇靈祭	선조를 공경하고 망인에게 조의를 표함
13	체육의 날(体育の日)	10월 제2 월요일		1999년까지는 10월 10일이었으나, ‘해피먼데이제도’에 의해 요일고정이 됨

1) 정식으로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78호) 제2조에서 ‘국민의 축일’로 정해졌으며, 연간 16일의 공휴일이 된다.

14	문화의 날(文化の日)	11월 3일	明治節	일본 헌법이 공포된 날
15	근로 감사의 날(勤勞感謝の日)	11월 23일	新嘗祭	
16	천황탄생일(天皇誕生日)	12월 23일		현 천황의 생일

Ⅲ. 천황에 의한 궁중제사

일본의 마쓰리는 매우 다양하며 신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영역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로 나눌 수 있다.

〈표 2〉 영역의 크기에 따른 마쓰리(제사)의 분류

1	궁중제사	천황	궁중에서 행하는 제사. 천황이 국가나 국민의 평안을 기원. 즉위식인 대상제(大嘗祭, 다이조사이) 외, 신상제(神嘗祭, 간나미사이), 신상제(新嘗祭, 니나메사이) 등
2	신궁제사	이세신궁(伊勢神宮)	이세 신궁에서 행하는 제사. 황실과 국가의 평안을 기원. 20년마다 행하는 식년천궁(式年遷宮)
3	신사제사	전국의 각 신사	전국의 신사에서 행하는 제사. 메이지 시대 이후에 大祭, 中祭, 小祭로 구분되어 년 1회의 例大祭 등이 있다.
4	민간제사	가정	가정 내의 가미다나(神棚)나 조령사(祖靈舎)를 중심으로 행함

궁중제사는 천황이 국가와 국민의 번영과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를 말한다. 황거(천황이 거하는 궁전과 주거지. 현재 도쿄 지요다 구에 소재)의 궁중삼전(宮中三殿, 황거에 있는 가시코도코로(賢所), 고레이덴(皇靈殿), 신덴(神殿))에서 열린다. 궁중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니나메사이(新嘗祭)이다.

〈표 3〉 주요 궁중 제사

월일	명칭	내용
1월 1일	四方拜	설날 이른 아침 천황이 궁중3전의 부속건물인 신가전(神嘉殿)에 이세신궁, 산릉(山陵) 및 사방의 신에게 요배(遙拜)를 함
	歳旦祭	아침에 궁중3전에서 행해지는 연중최초의 祭儀
1월 3일	元始祭	황위의 유래를 축하하고 국가국민의 번영을 3전에서 기원하는 제전
1월 4일	奏事始	
1월 7일	昭和天皇祭	쇼와 천황이 붕어한 날에 皇靈殿에서 행하는 제전
2월 17일	祈年祭	그 해의 풍작을 3전에서 기원하는 제전
춘분	春季皇靈祭	춘분 날에 皇靈殿에서 행해지는 선조제
	春季神殿祭	춘분 날에 神殿에서 행해지는 神恩 감사제
4월 3일	神武天皇祭	진무 천황이 붕어한 날에 皇靈殿에서 행하는 제전
	皇靈殿御神樂	진무 천황제 밤, 가구라(神樂)를 헌상하여 신령을 위로하는 제전
6월30일	節折	천황을 위한 하라이 행사
	大祓	神嘉殿 앞에서 황족 및 국민을 위해 행해지는 하라이 행사
추분	秋季皇靈祭	추분 날에 皇靈殿에서 행해지는 선조제
	秋季神殿祭	추분 날에 神殿에서 행해지는 神恩 감사제
10월 17일	神嘗祭	賢所에 햅쌀을 바치는 神恩 감사제. 아침에 천황은 神嘉殿에서 이세 신궁에게 요배
11월 23일	新嘗祭	神嘉殿에서 천황이 햅쌀을 황조 및 신들에게 바치고 神恩을 감사하고, 천황도 같이 음식을 먹은 제전
12月中旬	賢所御神樂	밤 시간에 賢所에서 가구라(神樂)를 헌상하여 신령을 위로하는 제전
12월 23일	天長祭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여 3전에서 행하는 제전
12월 31일	節折	천황을 위한 하라이 행사
	大祓	神嘉殿 앞에서 황족 및 국민을 위해 행해지는 하라이 행사
毎日	日供の儀 每朝御代拜	

IV. 신궁 제사

이세 신궁(伊勢神宮)의 정식명칭은 ‘신궁(神宮)’으로 이세 신궁에서 행하는 제사를 ‘신궁 제사’라고 한다. 신궁에는 황실의 선조신이며 국민에게 최고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를 모신 내궁(內宮, 皇大神宮)과 의식주를 비롯하여 산업의 수호신인 도요우케노 오미카미(豐受大御神)를 모신 외궁(外宮, 豐受大神宮)을 비롯해, 14곳의 별궁(別宮), 43곳의 섭사(摂社), 24곳의 말사(末社), 42곳의 소관사(所管社) 등이 있으며, 이들 125곳의 궁사(宮社) 전체를 ‘신궁’이라고 한다.

연간 1500회에 이르는 신궁의 향례 마쓰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간나메사이(神嘗祭)와 식년천궁(式年遷宮)이다.

간나메사이(神嘗祭)는 그 해에 수확한 햅쌀을 최초로 아마테라스에게 바치며 감사의 마쓰리로, 유키노오미케(由貴大御饗)와 봉폐(奉幣)를 중심으로 해서, 오키타마노가미사이(興玉神祭), 미우라(御卜), 미카구라(御神樂) 등의 제사를 행한다. 또한 부속된 마쓰리로, 봄에 신궁 정원(神宮御園)에서 열리는 미소노사이(御園祭), 신궁신전(神宮神田)에서 열리는 신덴게슈사이(神田下種祭), 가을의 누이보사이(拔穗祭), 미사카도노사이(御酒殿祭), 미시오도노사이(御塩殿祭), 오히라이(大祓)가 있어, 신궁의 연간 제전(祭典)은 간나메사이(神嘗祭)를 중심으로 행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식년천궁에 관해서인데, ‘식년(式年)’이란 정해진 해, ‘천궁(遷宮)’이란 궁을 옮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년천궁은 20년에 1번 동쪽과 서쪽에 있는 궁터에 옛날 그대로 사전(社殿)이나 의상 및 신보(神寶)를 전부 새것으로 바꾸어 신을 옮겨 모시는 마쓰리이다. 이 제도는 약 1300년 전, 덴무(天武) 천황 때 시작하여, 지토(持統) 천황 4년



〈그림 1〉 왼쪽이 신 사전(社殿), 오른쪽이 구 사전

(690)에 제1회가 행해졌고, 헤이세이25년(2013)에 제62회의 천궁이 행해졌다. 내궁, 외궁의 정전(正殿)을 비롯하여 14곳의 별궁, 우지마시(宇治橋)도 새로 만들어지는 식년천궁은 ‘황가제일의 중대사, 신궁 제일의 큰 행사’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최대, 최고의 마쓰리이다.

V. 신사 제사-일본의 3대 마쓰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레나 가마를 들고 화려한 퍼레이드를 펼치는 마쓰리는 신사제사에 속한다. 마쓰리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많은 불행이나 원령(怨靈)에 도달하게 되는데, 본장에서는 많은 신사 제사 중에서도 일본 3대 마쓰리라 일컬어지는 교토(京都)의 기온마쓰리(祇園祭), 도쿄(東京)의 간다마쓰리(神田祭), 오사카(大阪)의 덴진마쓰리(天神祭り)에 관해서 살펴보자.

1. 기온마쓰리

비명(非命)에 죽은 자가 원령(怨靈)이 되어 어떤 특정한 사람 및 천재지변(天災地變)을 통하여 지벌을 내리는 것을 어령(御靈)이라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어령신앙이라 한다. 신령이 지벌을 내리는 것은 예부터 있어 왔지만 사령(死靈)이 지벌을 내리는 것은 나라(奈良) 시대부터 시작된 듯하다. 헤이안(平安) 초기에는 사와라(早良) 친왕의 사령이 간무(桓武)천황에게 지벌을 내렸다. 이것은 정치적 패자가 특정개인에게 지벌을 내린 경우였다. 정관(貞觀) 5년(863)에는 사와라(早良) 친왕 이하 6명의 어령이 역병을 만연시켰다고 해서 신천원(神泉苑)에서 어령회가 열렸다. 이것은 정치적 패배자가 정적(政敵)뿐만이 아니라 헤이안경 도읍의 민중에게도 지벌을 내린 것으로 어령회는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한 국가적 의례였다. 헤이안 중기 이후 어령회는 사찰과 신사의 연중행사로 변해갔다. 그 결과 어령은 사령보다 역신(疫神)적인 성격이 강해졌고 어령 이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교토(京都)

■中御座



御祭神／素戔嗚尊
(すさのをのみこと)

形状／六角形

■東御座



御祭神／櫛稲田姫命
(くしいなだひめのみこと)
※素戔嗚尊の妻

形状／四角形

■西御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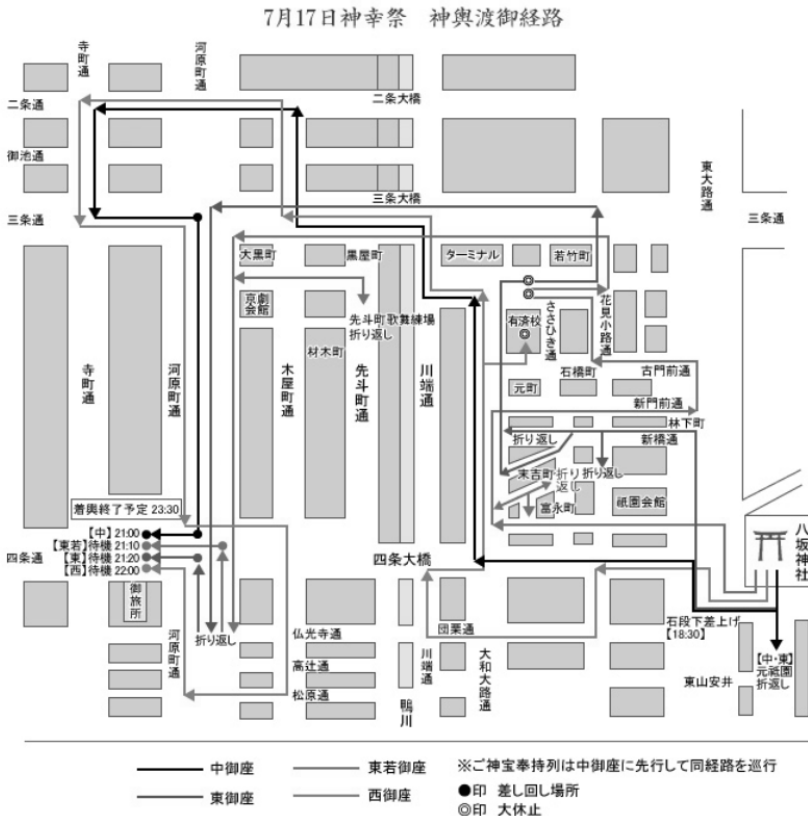
御祭神／八柱御子神
(やはしらのみこがみ)
※2人の子供

形状／八角形

〈그림 2〉 마쓰리 행렬에 사용되는 미코시

왼쪽부터 스사노오노미코토, 수시아나다히메노미코토, 야하시라노미코가미를 각각 모시고 있다.

의 기온마쓰리(祇園祭)는 우두천왕(牛頭天王)을 제사지내는데 오래전부터 기온어령회라 불리며 역병퇴치를 목적으로 발생했다. 이 우두천황은 지벌을 내리기 쉬운 존재로,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와 습합되어 퍼졌으며 이러한 도시형 마쓰리는 원래의 어령회에 있었던 예능의 요소를 더욱 성대하고 화려하게 해서 발전하였다.



〈그림 3〉 행렬의 순행로

2. 간다 마쓰리

간다 마쓰리(神田祭)는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구(千代田區) 간다(神田) 지역에서 매년 5월 15일경에 열리는 민속 축제로, 에도막부(江戸幕府)의 초대 쇼군(將軍,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1603년 세키가하라 전투(関が原の戦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 개최한 축제에서 비롯되었다. 에도시대에는 다시(山車)가 메인이었었는데, 메이지 시대에는 불경기와 전선 때문에 다시(山車)가 행렬을 할 수 없게 되어, 다이쇼(大正)시대에 들어 미코시(神輿)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간다 마쓰리는 간다묘진신사(神田明神神社)를 중심으로 개최되는데, 미코시(神輿) 행진이 유명하다. 이는 3백여 명의 사람들이 미코시를 지고, 간다(神田), 니혼바시(日本橋), 오테마치(大手町), 마루노우치(丸の

◎ 三基の鳳輦と神輿について



一の宮鳳輦

大己貴命 おおむちのみこと

だいこく様をお乗せる鳳輦。



二の宮神輿

少彦名命 すくなひこなのみこと

えびす様をお乗せる神輿。



三の宮鳳輦

平将門命 たいらのまさかのみ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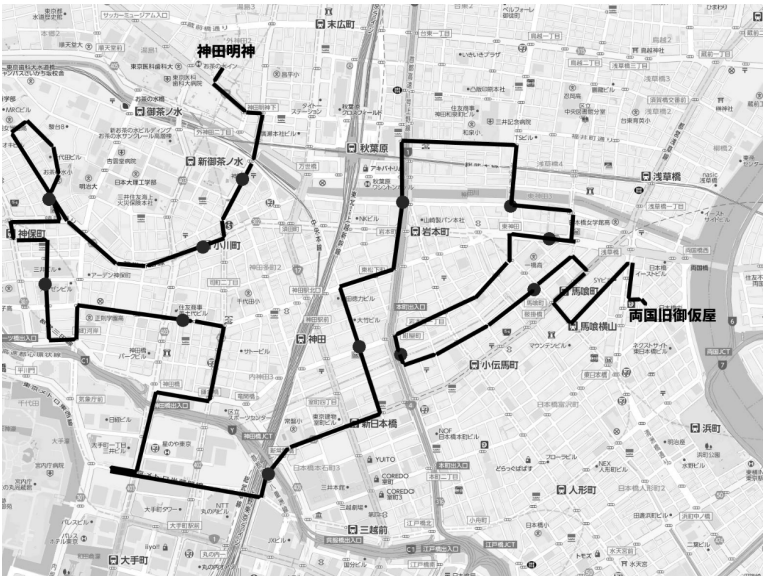
まさか様をお乗せる鳳輦。

〈그림 4〉 왼쪽부터 오나무치노미코토,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 다이라노마사카도노미코토를 모시고 있다.

内) 등 도쿄 중심부 지역을 가로질러 행진하는 의식이다. 자치회와 기업, 상인회 등에서 준비한 작은 미코시 1백여 개의 뒤를 이어 말을 탄 승려와 신도들이 ‘간다바야시’(神田囃し, 흥을 돋우기 위해서 피리, 북, 장구 등으로 반주하는 음악)에 맞춰 진행되는 행렬은 장관을 이룬다.

【2017년도 주요 일정】

- 5월11日(木) 午後7時 鳳輦神輿遷座祭
- 5월12日(金) 夕刻 氏子町会神輿神霊入れ
- 5월13日(土) 終日 神幸祭(神田、日本橋、大手・丸の内、秋葉原巡行)
- 5월13日(土) 午後3時 附け祭
- 5월13日(土) 午後4時半 神輿宮入
- 5월14日(日) 終日 神輿宮入



〈그림 5〉 오전: 8시 神田明神 출발 → 10시25분 다이라노 마사카도 首塚 · 11시 50분 和泉公園 → 13:20 两国旧御飯屋

3. 덴진마쓰리

오사카의 덴진마쓰리의 무대인 오사카텐만구(大阪天滿宮)에는 스가와라노미치자네(菅原道眞)가 모셔져 있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 845-903)는 헤이안 시대를 대표하는 관인(官人)·한학자(漢學者)·한시인(漢詩人)·가인(歌人)이었다. 스가와라노고레요시(菅原是善)의 셋째 아들로, 문장박사(文章博士), 우대신(右大臣)을 거쳐, 창태(昌泰) 4년(901), 대재(大宰) 권수(權帥)로 좌천당하여, 대재부(大宰府)에서 귀양 생활을 하며 망향(望郷)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남기며 실의에 빠진 채 생애를 마쳤다. 사후 천변지이(天變地異)가 다발했기에 조정에 지벌을 내렸다고 인식되어 덴만덴진(天滿天神)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오사카 텐만구(大阪天滿宮)는 미치자네가 901년 다자이후(太宰府)로 귀양가던 도중, 이곳에 원래 있었던 다이쇼군사(大將軍社)에 들러 귀로의 안전을 빌었고, 949년 이 신사 앞에 하룻밤 만에 소나무 7그루가 자라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당시의 무라카미(村上) 천황은 이것은 미치자네가 한 것으로 이곳에 신사를 짓도록 명하였다는 것이 그 기원이다.

기온마쓰리가 야마호코(山鉾) 순행이라고 한다면, 덴진마쓰리는 신령(神靈)을 배에 태워서 오오카와(大川)를 가는 후나토교(船渡御)로 유명하다. 951년부터 가미호코(神鉾)를 강에 흘려보내서 멈춘 곳에 미타비쇼(御旅所, 신령이 휴식하는 곳)제사 장소로 하고 미소기(禊)를 행하는 호코나가시신사(鉾流神事)가 행해졌다고 한다. 그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맞이했는데 이것이 후나토교(船渡御)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매년, 요이미야(宵宮)가 7월 24일, 모토미야(本宮)가 다음날 7월 25일

로 정해져 있는데, 25일에는 미코시(御輿)가 행렬을 하는 리쿠도교(陸渡御)와 배들이 행렬하는 후나토교(船渡御)가 거행된다. 미코시나 배에는 스가와라노미치자네의 신령이 타고 있으며, 신령이 그 지역을 돌며 보고, 신령에게 더욱 큰 번영을 기원하는 행위이다. 10세기 교토에서 어령회(御靈會)가 행해졌을 때, 미코시(神輿) 2기(基)였다는 고사(故事)를 모방해서, 덴진마쓰리에서도 오토리미코시(鳳神輿)와 다마미코시(玉神輿)가 등장한다. 이외에 봉납불꽃놀이(奉納花火), 덴진사이 걸미코시 등이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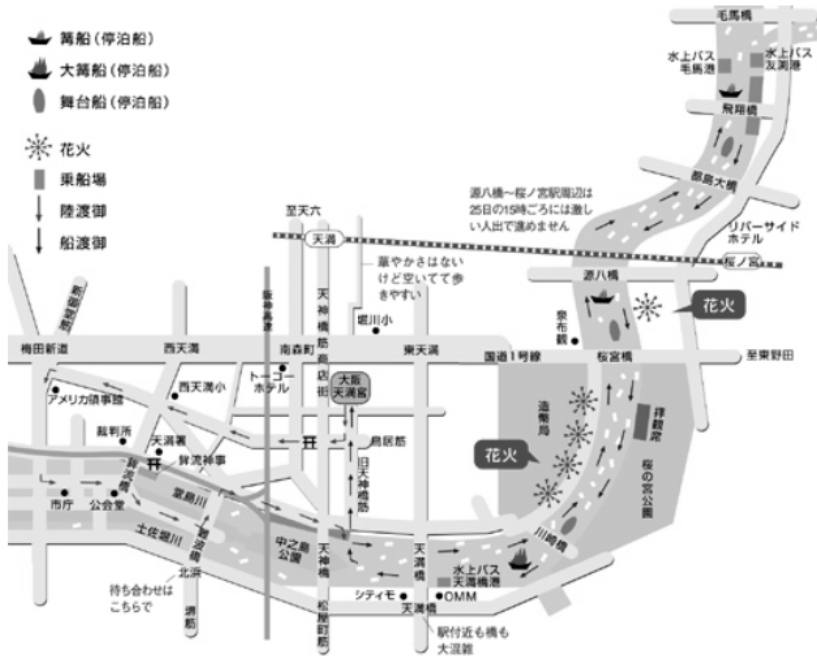
〈그림 6〉 鳳神輿, 에도시대까지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신령이 안치됨



〈그림 7〉 玉神輿, 에도 시대까지는 승려손이(尊意)가 안치됨



〈그림 8〉 御鳳輿, 1876년 등장



〈그림 9〉 리쿠도교(陸渡御)와 후나토교(船渡御)의 진로

VI. 가정제사

예부터 일본인은 집안에서도 신을 모셔왔다. 정월에 맞이하는 도시가미(歳神)를 비롯하여, 부엌에서는 조신(竈神), 우물에서는 우물신(井戸神) 등 다양한 신을 모셔서 생활을 지켜주는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다. 근세시대(16세기경) 이후에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의 부적인 신찰(神札, 신궁대마 <神宮大麻>라고도 함)과 우지가미(氏神)의 신찰 혹은 특별하게 숭경하는 신사가 있으면 그 신찰을 가미다나(神

棚)를 설치하여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집 안에서 신을 모시는 장소가 가미다나(神棚)이며, 가미다나는 일반적인 공간과 신성하고 고위한 공간을 구별한다. 가미다나를 설치하는 집안에서도 가족이 모이는 청정한 곳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밝고 조용하며 높은 곳, 남향, 혹은 동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다다미방의 객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신찰을 넣어 보관하는 용기를 미야가타(宮形)라고 하는데 그 형태나 크기는 다양하여, 모시는 장소(가미다나의 폭, 높이 등)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고른다.

신찰을 배열하는 순서는 중앙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하고 다음이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에 배치시킨다.

삼사구조(三社作り)의 미야가타의 경우, 중앙에는 일본의 총우지가미(氏神)인 이세신궁의 신찰, 오른쪽 그 지역의 우지가미, 왼쪽에 숭경하는 신사의 신찰을 배치한다. 그리고 그 외 신사를 참배했을 때 받은 신찰은 왼쪽에 배치한 신찰 뒤쪽에 포개어 세운다. 한편, 일사구조(一社作り)의 미야가타인 경우는 이세신궁의 신찰을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우지가미, 숭경하는 신사의 신찰을 겹쳐서 놓는다. 신찰 수가 많아져서 미야가타에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미야가타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신찰이 큰 경우는 미야가타 옆에 정중하게 배치시킨다.

연말에 대청소를 하며 신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가미다나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새로운 신찰을 배치하여 신년을 맞는다. 일 년간 보살피 줌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신찰을 받았던 신사에 반납하여 태우게 하고 새로운 신찰을 받아서 모시게 된다.



〈그림 10〉 삼사구조



〈그림 11〉 일사구조



〈그림 12〉 벽에 설치된 가미다나

VII. 결론

지금까지 일본의 전통 마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지만 대부분이 신사(神事)계통의 것으로, 이외에 습속(習俗)계통, 이벤트계통의 마쓰리를 포함시키면 연간 수십만 건의 마쓰리가 행해지고 있다. 그 종류와 수적인 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신사(神事)계통의 마쓰리의 종교적 베이스가 되고 있는 신도(神道)사상은 모든 것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자연숭배(에니미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마쓰리의 행위에는 감사의 마음, 상부상조, 자연에 대한 경외심 등 현대인이 자칫 상실하기 쉬운 덕목들이 동반된다.

지역 내의 도시화, 소자화에 따른 전통 마쓰리 계승자의 감소나 지방 마쓰리의 쇠퇴가 현저한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뜻을 새겨, 마쓰리의 기원과 덕목을 체현함과 동시에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서의 마쓰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久能木紀子 外, 『日本の神様と祭り』, 洋泉社, 2017.

菅田正昭, 『日本の祭り 知れば知るほど』, 実業之日本社, 2007.

〈Abstract〉

A study of Japanese “Matsuri”

Lee, Si Jun

The word “Matsuri (Japanese festivals)” makes us remind of the procession of lantern and moulded objects with the hilarious music in general. However, a ritual(Saishi) performed by the emperor in the imperial court and a religious ceremony(Saigi) held in shrines on a daily basis are also called “Matsuri.” “Matsuri” was based on the religious service by a community in an agrarian society, in which people worship god, celebrate the harvest and sing and dance with their feelings of gratitude. The Shinto theology, the religious base of “Matsuri,” originally has elements of animism that a deity dwells in all things. “Matsuri” concludes good virtues such as feelings of gratitude, mutual assistance, and awe and respect for nature, which are being lost in the present era. We should explore and clearly understand the authenticity of “Matsuri” that is marked with good virtues and also contributes to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Key Words: Japanese Matsuri, religious ceremony, Shinto, animism,
emperor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 접수되어 11월 30일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